

"다양한 선천성 심장질환 최소절개 심장수술 유용"

피부절개 평균 6.3cm : 미용외과 "탁월"

서울대병원 金容珍교수팀 발표

다양한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방법으로 최소절개심장수술이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의

과 金容珍교수팀(李正烈 교수)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소절개심장수술 77례를 시행한 결과 △통증 감소

△수술후 조기회복 △재원기간 단축 △미용효과 탁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金교수팀이 실시한 최소절개심장수술은 흉골전체를 절개하지 않고 흉골의 일부를 T형·J형·I형·역C형 역T형 등의 형태로 절개하여 수술시야를 확보한 후 심장수술을 하고 고난이도 술기가 필요한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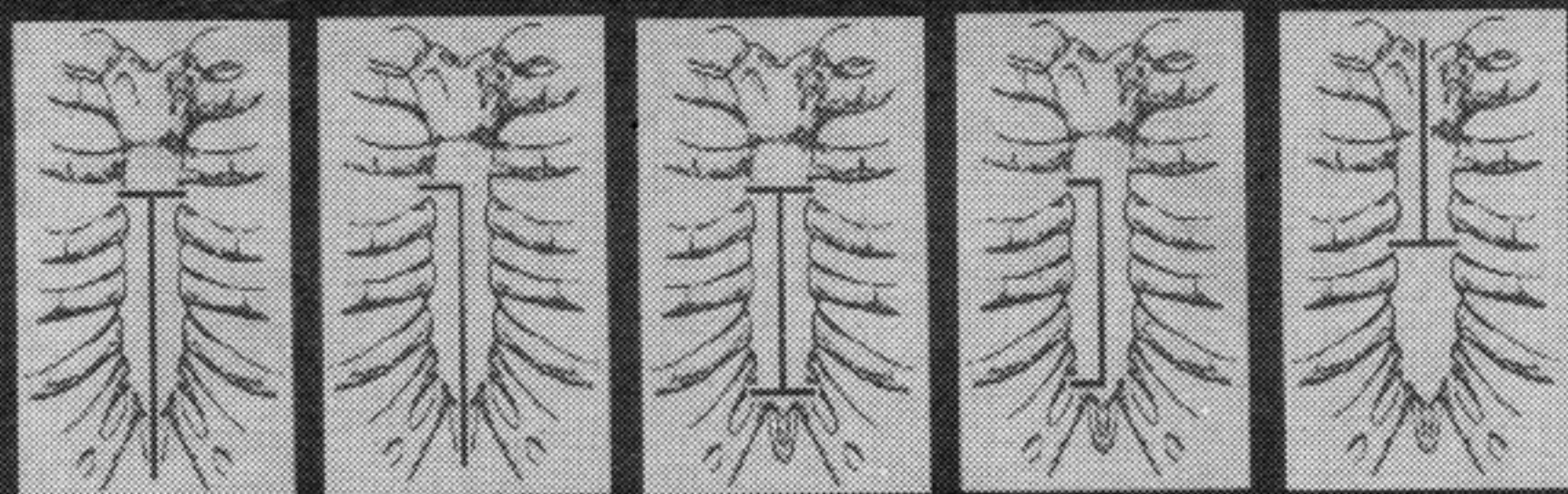
金교수팀에 따르면 77례의 최소절개심장수술 피부절개 길이는 평균 6.3cm였으며 상흔과 연관 합병증 및 수술사망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金교수팀이 특히 최소절개심장수술 77례 가운데 선천성 심장질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심실 및 심방 중격결손증이 68례(심실중격결손증 42례, 심방중격결손증 26례)를 차지해 이들 환자에 대한 수술법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金교수팀은 이와함께 이번 수술례에 부분방실 중격결손증 4례, 활모씨 사지증 2례, 전폐정맥이

상연결증(심장형 1례, 대동맥내 이물 1례, 엡스타인 심기형 1례 등)도 있어 최소절개심장수술이 선천성 복잡심장기형의 수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흉골소절개모식도



T형 (18례) J형 (32례) 역C형 (4례) 역T형 (2례)